

**Daniel: 38 – Sermon Notes**

Title: “Warring kings of the North and South part 1”

Scripture: Daniel 11:1-8

Date preached: March 16<sup>th</sup> 2025**Scripture: Daniel 11:1-8**

1 “Also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Mede, I, *even I*, stood up to confirm and strengthen him.) 2 And now I will tell you the truth: Behold, three more kings will arise in Persia, and the fourth shall be far richer than *them* all; by his strength, through his riches, he shall stir up all against the realm of Greece. 3 Then a mighty king shall arise, who shall rule with great dominion, and do according to his will. 4 And when he has arisen, his kingdom shall be broken up and divided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but not among his posterity nor according to his dominion with which he ruled; for his kingdom shall be uprooted, even for others besides these.

5 “Also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come strong, as well as *one* of his princes; and he shall gain power over him and have dominion. His dominion *shall be* a great dominion. 6 And at the end of *some* years they shall join forces, for the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outh shall go to the king of the North to make an agreement; but she shall not retain the power of her authority, and neither he nor his authority shall stand; but she shall be given up, with those who brought her, and with him who begot her, and with him who strengthened her in *those* times. 7 But from a branch of her roots *one* shall arise in his place, who shall come with an army, enter the fortress of the king of the North, and deal with them and prevail. 8 And he shall also carry their gods captive to Egypt, with their princes *and* their precious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he shall continue *more* years than the king of the North.

1 그 천사는 다시 말을 하였다 “나는 메대인 다리우스 원년에 다리우스를 도운 일이 있었으나 2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겠다 앞으로 페르시아에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네 번째 일어나는 왕은 다른 왕들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3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4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5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6 몇 해 후에는 이집트 왕이 사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사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7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 사리아군을 쳐서 이기고 8 그들의 신상과 값진 금은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올 것이며 몇 해 동안은 사리아 왕을 차지 않을 것이다

**Review**

Today we will begin chapter 11 which contains one of the most detailed prophecies given to us in the bible. However before we do that let us take a moment to look at how chapter 10 concluded. The events of chapter ten took place in the year of 536 BC. It was in this year that Daniel received a message from God. The import of the message was such that it left Daniel in a state of deep mourning. For 21 days he entered a state of self-imposed denial. He ate only simple vegetarian meals, and gave up meat and wine. It was also during this time that he prayed and asked God to give him insight and wisdom. He wanted to understand what it was God was telling him. After this three week period Daniel found himself on the banks of the Tigris River. It is here that he encounters a number of supernatural beings.

The first figure to appear was I believe a preincarnate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Others may disagree with me on this point. Some may argue that it was merely an angel. I will leave it up to you





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4 세기에서 2 세기 사이의 페르시아, 그리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제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분(메시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 장에 포함된 예언은 대단히 정말하게 역사적 사건을 예측합니다. □ □,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현대 회의론자들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존 골딩게이와 어니스트 루카스와 같은 복음주의 학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기록된 예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세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세기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포함하여 성경의 초자연적 측면을 모두 무시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6 세기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된 예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었는지 고민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그토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최악의 경우 사기꾼이거나 거짓해야 "가짜 예언 pseudo-prophecy" 을 하고 있어 그것은 당시에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문학 장르였는데, 그 목적은 역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은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졌으며 예언처럼 보이도록 "가장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기원전 6 세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원전 2 세기인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기원전 175-164 년) 시대에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기록한 사람도 다니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수세기 전에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무결성을 훼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거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흠잡을 데 없는 성품을 지닌 다니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의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읽는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였음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약간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많은 세부적인 고대 역사를 포함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고대 성경 역사를 좋아한다면 오늘의 설교를 즐기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용이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서 마치고 예언을 살펴 보겠습니다.

### **1 “Also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Mede, I, even I, stood up to confirm and strengthen him.)**

As you know the bible was not originally divided into chapters and verses. These artificial divisions, which are often so helpful came about at a much later date in history. So actually verse 1 of chapter 11 really should be attached to the end of chapter 10. When you read it in the correct place it makes much better sense.

What we are reading here are the angel's (Gabriel's) words outlining what he had been doing. He is reminding Daniel of not only what he had been doing lately; fighting the prince of Persia, but also what he had done as the Persian Empire conquered Babylon and Darius was appointed as its ruler. This of course was in the year of 539/538 BC. This angel it seems had been instrumental in

assisting Darius to rise to power and pass policies that were beneficial to the Jews. The year 538 BC was an important year.

It was the year when the decree issued by Cyrus was passed to allow God's people to return to the land of Israel (Ezra 1:1-4). We can be sure that the Prince of Persia was not supportive of this. Satan did not want God's people to return to the promised land.

We can imagine then that Satan and his demonic forces were doing all they could to make life difficult for God's people. God seeing this conflict had sent His good forces to help combat the work of Satan. This verse then provides us with some interesting detail on why God's angels were fighting.

It's also serves as a useful reminder to us that God is always working in the background. Though we may not be aware of how God is shaping and moulding history we should remember that He is. In this case He sent His angels to protect and preserve His people, and allow some of them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Israel.

**1 그 천사는 다시 말을 하였다 “나는 메대인 다리우스 원년에 다리우스를 도운 일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래 장과 절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종종 유용한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은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 □□□□□ 따라서 실제로 11 장의 1 절은 10 장의 끝에 이어지는데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여기 내용은 천사(가브리엘)가 자기가 해온 일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일 즉 페르시아 군주 prince 와 싸운 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다리우스가 통치자로 임명되었을 때 자기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39 또는 538 년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다리우스가 권력을 잡고 유대인에게 이로운 정책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38 년은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에스라 1:1-4). 페르시아의 군주 prince 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 □□□□ □□ □□ □□ □□□□ □□ □□ □□□□ 그래서 사탄과 그의 악령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을 보시고 사탄의 일을 막기 위해 선한 세력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이 경우,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셨으며, 그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2 And now I will tell you the truth: Behold, three more kings will arise in Persia, and the fourth shall be far richer than them all; by his strength, through his riches, he shall stir up all against the realm of Greece.**

The angel begins by telling Daniel that he is about to impart the truth. We can be assured of this because we know he was despatched from God. God cannot lie therefore any message He delivers must be the truth. The truth concerns what will happen to, or events that will affect His chosen people.

The first thing the angel tells Daniel is that three Persian kings will arise after Cyrus the Great. History tells us that these kings were Cambyses (529-522), Pseudo-Smerdis (522-521) and Darius I (Darius the Great) (521-486). Let's look at each in turn.

**Cambyses** was the son and successor of Cyrus the Great. His great ambition was to invade Egypt. He wanted to regain the territory that Nebuchadnezzar had gained, but that was later lost. In order to do this Cambyses manufactured an excuse for a war/ He said that he had asked for the hand in marriage of one of the Egyptian princesses but had been rejected by her father. His honour had been besmirched and he needed retribution. Off he went down to Egypt with his army.

He was successful in conquering Egypt, but then he got greedy and overambitious. He tried to



페르시아의 주요 사제 중 한 명인 가우마타(일명 바르디아)가 반란을 모의하고 공적인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죽은 왕자 스메르디스(캄비세스에게 살해됨)의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를 가짜 스메르디스 Pseudo-Smerdis 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캄비세스는 그 사실을 알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불행히도 그는 이 "□□□"을 몰아내기 위해 돌아 오던 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스메르디스는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21 년에 살해되면서 그의 통치는 1 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후 **다리오스 1 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캄비세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치한 현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그가 아시리아인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운 훌륭한 왕으로 기록합니다(에스라 6 장). 다리오스 1 세는 기원전 486 년에 죽었습니다.

천사는 이 세 왕에 이어서 더 부유하고 강력한 네 번째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를 공격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 왕이 정확히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아하수에로스 Ahasuerus 로도 알려진 크세르크세스 1 세 Xerxes I 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을텐데, 그는 에스더서에서 언급된 왕입니다. 그는 전임 왕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는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말한 대로 그는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방대한 부를 사용하여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했습니다. 기원전 480 년에 그리스를 침공하려다가 그의 광대한 함대는 살라미스와 사모스에서 패배했고 그의 군대는 플라타이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비통하고 분노에 찬 채로 귀국했습니다. □□□□□□□□ 는 기원전 465 년 8 월에 암살당했습니다.

**3 Then a mighty king shall arise, who shall rule with great dominion, and do according to his will. 4 And when he has arisen, his kingdom shall be broken up and divided toward the four winds of heaven, but not among his posterity nor according to his dominion with which he ruled; for his kingdom shall be uprooted, even for others besides these.**

In this verse the angel predicts that another king will arise after Xerxes. He will rule with absolute and uncontested power. Who is the angel talking about? This is a prophecy predicting none other than the charismatic military genius who was Alexander the Great. Now, this all came to pass about 150 years after Xerxes. Alexander led his Greek forces and conquered Persia between the years 334 and 330 BC. For this brief time in history Alexander was unstoppable. None were able to prevent him doing exactly as his will desired.

Now some over the centuries have wondered why such an important, and well known figure as Alexander only warrants this small entry in this important prophec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is was a prophecy concerning the Jews and Jewish interests. Alexander did not have a massive impact upon Israel. He did not destroy Jerusalem even though he successfully conquered the area. He was also tolerant and accepting of the Jewish religion. Why you might wonder was this? Didn't all Greeks want to impose their culture (Hellenism) upon those they conquered?

Well, the historian Josephus tells an interesting story concerning Alexander. Apparently when Alexander first arrived in Jerusalem he was taken to see Jaddua the high priest. The high priest showed him this verse (verse 3) in the Book of Daniel and told him it referred to him. We should also note here that prior to this meeting Alexander had seen Jaddua in a vision. The Greek leader was, as we might imagine suitably impressed. So much so in fact that he decided to spare the city and granted it religious toleration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book XI, chapter 8).

As you know Alexander died at the young age of 33. He had no rightful heir (**no posterity**). This is not strictly speaking true. Alexander had a half-brother who was mentally retarded. He also had an illegitimate son, and he had a baby born after he died. So in theory any of these three could have been a legitimate heir. However all three were murdered shortly after Alexander's death. Things were often brutal in the ancient world. This meant that the Greek Empire was split between his four top generals (Cassander, Lysimachus, Seleucus, and Ptolemy).

Cassander took Macedonia, Lysimachus took Thrace and Asia Minor, Ptolemy took Egypt, and Seleucus took Syria. Now it's time for a brief geography test. In location to Israel where is Egypt? South of course. In relation to Israel where is Syria. It's north. So as we progress it will be those two

empires we focus upon.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y surrounded Israel. They would be continually fighting each other for control of Israel. This prophecy as I told you before centres upon God's people.

**3 그 후에 그리스에서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4 그러나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자기 자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다른**  
□□□□ □□□ □□□

이 구절에서 천사는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왕은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 왕은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군사 천재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크세르크세스 이후 약 150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기원전 334 년 - 330 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어떤 사람들은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인 알렉산더가 이토록 중요한 예언에서 이처럼 작은 부분만 차지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예언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헬레니즘)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렉산더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 아두이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니엘서의 이 구절(3 절)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해 예언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만남 이전에 알렉산더는 환상 속에서 아두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이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도시를 그대로 두고 종교적 관용도 베풀었습니다.(요세푸스, 유대인 고대사, 11 권 8 장).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33 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상속자(후손)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정신 지체인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생아도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셋 중 누구라도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알렉산더가 죽은 직후에 살해당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제국은 쪼개지고 네 명의 최고 장군들(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이 나누어 통치합니다.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셀레우쿠스는 시리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지리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집트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 그럼 시리아는 어느 쪽입니까? 북쪽입니다. 바로 이 두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싸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 “Also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come strong, as well as *one* of his princes; and he shall gain power over him and have dominion. His dominion shall be a great dominion.**

In this verse we read about the "king of the south" becoming strong. The southern empire as we have just established was known as the Ptolemaic Empire (Egypt). It gets this name from its initial founder Ptolemy I Soter. He established this empire in 323 BC. He was an ambitious monarch and initially at least the southern empire was the more powerful of the two.

However Ptolemy I would not remain in the ascendancy for long. In 321 BC Seleucus I Nicator another of Alexander's generals was appointed over what had formerly been Babylon. Things went well for a few years until his authority was challenged. In 316 BC another of Alexander's generals, Antigonus, attacked Babylon. Seleucus was out matched and so he sought help from Ptolemy I. Ptolemy I decided to support him and this enabled Seleucus to retain control of Babylon. This means that in a sense he was “one of Ptolemy's princes.” He had to submit to him to order to gain his military support. However over time Seleucus would go on to rule all of Babylonia, Media, and

Syria, a territory much larger than Ptolemy's. He would exactly as the prophecy predicts one day have dominion over the kingdom of the south. Let us continue.

### 5 “**이집트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사령관 중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며 꺾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에서 "꺾"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남방 제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집트)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초대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 세 소테르에서 따왔습니다. 그는 기원전 323 년에 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야심 찬 군주였고 초기에는 남방 제국이 두 제국 중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1 세는 그러한 우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21 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1 세 니카토르가 이전에 바빌론이었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권위가 도전받기 전 몇 년 동안은 그의 통치는 순탄했습니다. 기원전 316 년에 알렉산더의 또 다른 장군인 안티고노스가 바빌론을 공격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역부족이었고 프톨레마이오스 1 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 세는 그를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을 계속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프톨레마이오스의 군주 중 한 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더 큰 영토인 바빌론, 메대, 시리아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이 언급한 대로 언젠가 남방 제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6 And at the end of *some* years they shall join forces, for the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outh shall go to the king of the North to make an agreement; but she shall not retain the power of her authority, and neither he nor his authority shall stand; but she shall be given up, with those who brought her, and with him who begot her, and with him who strengthened her in *those* times.**

We now jump forward a few years. Verse 6 tells us about a union, or an agreement of the two nations (north and south) achieved through a marriage. Let me give you the history that allowed this to take place.

In the South, Ptolemy I died in 285 BC leaving the throne to his son Ptolemy II Philadelphus. Philadelphus was friendly toward the Jews. He is of interest to Christians especially those fascinated in the history of the bible. Ptolemy II was the ruler who sponsored the Septuagint translation of the Hebrew Bible into Greek. This was the first known translation of the bible from its original languages.

In the North meanwhile Seleucus I was assassinated in 281 BC. He was replaced by his son Antiochus I Soter (281-262). When he died his son Antiochus II became king. Are you keeping up? So we now have Ptolemy II ruling in the south and Antiochus II reigning in the north.

These two men were bitter enemies. They each wanted what the other had. However, they eventually managed to put their grievances to one side and joined forces. How you might ask did they do this? Well, in the long established way. Through a marriage alliance. Sadly though it would not be a marriage made in heaven. The couple at the centre of this political match would not go on to live happily ever after. Who married who? Let's find out.

Ptolemy II's daughter Berenice married Antiochus II. It was not easy however to manufacture this union. It required a great deal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The problem was that Antiochus was already married. So it required Antiochus to divorce his current wife Laodice. You might be interested to learn that she was the inspiration behind the city of Laodicea (Revelation 3:14). In divorcing from her Antiochus II also disinherited their children and agreed to appoint a future son of Berenice's as heir to the throne. Not surprisingly Laodice resented this turn of events greatly. And as we shall soon discover she was not a woman you wanted to cross.

Unfortunately, and perhaps not surprisingly this ill-judged attempt at peace between the two empires ended in disaster. When Ptolemy II died, Antiochus II promptly abandoned Berenice and

their child to reunite with Laodice. He then announced that Laodice's firstborn son would now inherit the throne.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Antiochus II died in mysterious circumstances. I wonder what happened to him? Many historians think he was poisoned by Laodice. I told you that she was not someone to cross. In the ensuing chaos that followed, Laodice's supporters murdered Berenice and her son. This set up Laodice's son, Seleucus II Callinicus, to become king.

We see then the angels prediction coming to fulfilment in breathtaking accuracy. The “she” who shall be “given up” is clearly Berenice. But she was not the only one to fall in all of this political intrigue. Those who “brought her,” perhaps a reference to diplomats or court advisors who arranged the marriage also fell. And not only them. The man who begot her; namely her father Ptolemy II and her husband Antiochus II were also not permitted “to stand” (live). However the story does not end there. There is a further twist in this complex tail.

**6 몇 해 후에는 이집트 왕이 사리아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사리아 왕에게 주어 아내를 □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그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의 자식과 그녀를 도와주던 자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 절은 결혼을 통해 두 나라(북방과 남방)가 연합한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일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 □ □ □ □ □ □ □ □ □ 1 세가 기원전 285 년에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 세 필리델푸스가 왕위를 물려 받았습니다. 필리델푸스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성경 역사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 세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후원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었습니다.

한편 북부에서는 셀레우코스 1 세가 기원전 281 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1 세 소테르(281-262)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2 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 세가 남부를 통치하고 안티오코스 2 세가 북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양육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상대방이 가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원한을 제쳐두고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방식인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적 결혼을 한 부부는 찬생연분이 아니다보니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 세의 딸 베레니케가 안티오코스 2 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쉽지 않았고, 많은 정치적 □ □ □ □ □ □ □ □ □ □ □ □

문제는 안티오쿠스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현재의 아내인 라오디케와 이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라오디케이라는 도시의 영감이 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요한계시록 3:14). 안티오쿠스 2 세는 그녀와 이혼하면서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베레니케에게서 태어날 미래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임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라오디케이는 이러한 일들에 크게 격분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두 제국 사이의 이 잘못된 평화 시도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 세가 죽자 안티오쿠스 2 세는 베레니케와 아이를 버리고 라오디케와 재회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라오디케의 만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에 안티오쿠스 2 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죽습니다. 그에 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라오디케가 그를 독살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라오디케의 지지자들은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라오디케의 아들인 셀레우코스 2 세 칼리니쿠스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죽임을 당할" "그녀"는 베레네케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음모에 빠진 사람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데려온" □ □ □ 아마도 결혼을 주선한 외교관이나 법정 고문관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낳아준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2 세와 그녀의 남편 안티오쿠스 2 세도 □ □ □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7 But from a branch of her roots one shall arise in his place, who shall come with an army, enter the fortress of the king of the North, and deal with them and prevail. 8 And he shall also carry their gods captive to Egypt, with their princes and their precious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he shall continue more years than the king of the North.**

Let us look at what the angel tells Daniel next. He mentions someone coming **from a branch of her roots**. The "her" in view here is, as we saw in the last verse Berenice. We are also told that one (a person) shall arise from "**her roots**." This means it cannot be a husband, or a child she produced but rather someone who comes from the same familial origins. Who might this be? This is actually a reference to Berenice's brother, Ptolemy III (246-222 BC). He is also known by the name "Euergetes" which means "Benefactor." He was understandably most unhappy with the way his sister had been treated and determined to avenge her.

He assembled an army and marched north to attack Seleucus II. He had taken refuge in the fortress of Antioch Syria. Ptolemy III and his superior forces were victorious. History tells us that he captured many slaves along with 40,000 talents of silver and 2,500 idol statues. Let me say something about just the silver. As you might guess 40,000 talents of silver is a huge sum. One talent is about equivalent to one kilogram in weight, so 40,000 kilograms of silver. According to the website "Bringing God's Word to the nations" at today's silver prices 40,000 talents of silver is worth around 1 billion US dollars. Ptolemy III secured all this booty and carried it back down to Egypt.

Following this the two king effectively ignored each other for a number of years. However in 240 BC Seleucus II decided to try and redress the balance. He assembled his army and mounted an attack against Egypt. He was unsuccessful in his endeavours and eventually returned home in shame. He later died after falling from his horse and was replaced on the throne by his son Seleucus III Soter.

This is exactly what we read about here in the prophecy. He (the king of the south) shall continue more years than the king of the north. The king of the north Seleucus II died from a fall. The king of the south Ptolemy III lived four more years before he died. Isn't this prophecy amazing? Aren't you impressed?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continue on with this wonderful prophecy.

**7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이 이집트 왕이 되어 사리아군을 쳐서 이기고 8 그들의 신상과 값진 금은 그릇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올 것이며 몇 해 동안은 사리아 왕을 차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음에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그녀와 같은 뿌리를 가진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녀"는 베레네케입니다. 한 사람이 "그녀의 뿌리"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나 그녀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같은 가족적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베레네케의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3 세(기원전 246-222 년)입니다. 그는 또한 "은인Benefactor"을 의미하는 "에우에르게테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 누이가 받은 대우에 매우 불쾌했고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북쪽으로 진군하여 셀레우코스 2 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안디옥 요새로 피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 세와 그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40,000 달란트의 은과 2,500 개의 우상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40,000 달란트의 은은 엄청난 양입니다. 1 달란트는 약 1kg 에 해당하므로 40,000kg 의 은입니다. 웹사이트 "Bringing God's Word to the Nations"에 따르면 오늘 □ □ □ □ □ □ □ □ 40,000 달란트의 은은 약 10 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 세는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두 왕은 수년간 사실상 서로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40 년 셀레우코스 2 세는 힘의 균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했고 수치를 안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밑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의 아들 셀레우코스 3 세 소테르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예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 □)는 북방 왕보다 더 오래 살았고, 북방 왕 셀레우코스 2 세는 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 □ □ □ □ □ □ □ □ □ 3 세는 4 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예언이 놀랍지 않나요? 감명받지 않으셨나요?

다음 주에 이 놀라운 예언을 계속하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God's plans may mean difficult times for His people**

We have a number of idioms in English for describing a situation in which you are stuck between two opposing forces. We say things like, "Caught in the cross-fire," "Stuck in the middle," or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All of these idioms describe the situation faced by Israel during the time span of chapter 11's prophecy. They had the might and power of the Seleucids to the north and the Ptolemys to the south. As these two rival powers challenged one another the battleground was often Israel. Even if the fighting didn't actually take place on Israel's soil they had armies marching back and forth constantly. It made for a very difficult existence for God's people. The people may have wished and prayed for an easier time but that was not God's plan. Of course, we know that much of their misery was self-inflicted. Had they remained loyal and devoted to God their situation would have been different. This was not what they chose to do. They rebelled and brought God's curses upon themselves. Nevertheless, its important for us to recognise the path God has for us is not always smooth.

Most of you listening have been following Christ for many years. You are, some more so than others mature and seasoned believers. You've walked the narrow path for some time. So if a new believer asked you if being a follower of Christ was easy what would you say? If you are a genuine disciple you'd tell them it is far from easy. The world is against us and temptations and obstacles continually block our way. We must also always remember that this world is corrupt and broken. As a consequence of sin we are surrounded by many things that make life hard for the Christian.

None of us enjoy difficult seasons in life. I'm sure that God's people in Daniel's day pleaded with God to intervene and end their suffering. But we must remember that often these difficult times that we experience are designed to serve a purpose. We are learning something important through the process or trial. God is using this experience to teach us something of value. We are also learning to trust and rely on God. We learn that we are unable to resolve these issues ourselves and therefore we must rely upon God. So what I'm saying is that following God may not always be easy. It will often be difficult. He will not always make the road ahead smooth. There will be bumps and pot-holes along the way. But equally we can be assured, just like the ancient people of Israel that God is sovereign and watching over us. He has a plan, it's a good one so let us take comfort and strength



It maybe true that we are nothing special, history will not remember any of us. There won't be a chapter in any history book charting your life or mine. But we are written into the most important book that exists. If you have confessed of your sins, repented and put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then your name is written in a book. The book is called the lamb's book of life. The names written in this book are guaranteed eternal life in God's presence. Princes and paupers are included. Those who were big and those who were small in life. God's only concern is how you responded to the one He sent to save. All that matters is whether you submitted yourself to and placed your faith in Jesus Christ. If you have not done that yet then do not delay. Make Him your Lord and saviour today.

## 2 □□ 작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인간은 종종 지위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손님을 소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을 Mr. Smith 라고 소개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스미스 박사 Dr. Smith, 스미스 교수 Professor Smith, 스미스 장군 General Smith 또는 스미스 시장 Mayor Smith 이라고 소개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직함을 언급하면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직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명예와 존경을 표합니다. 안양 시장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찬양대가 그를 위해 특별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에 줄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가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금 슬프지만 "평범한 □□"은 그런 특별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멸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역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11 장에서 초점은 왕과 통치자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왕, 여왕, 왕자, 장군 및 엘리트들이 일반적으로 헤드리인을 장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듯이 언급된 다른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살해된 불쌍한 아기, 배후에서 일을 꾸민 신하들과 정치인들. 하나님께서는 큰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은 왕과 왕자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돌보십니다. 당신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역사는 우리 중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역사책에도 당신이나 저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다면 당신의 이름은 책에 기록됩니다. 그 책은 어린양의 생명책 the lamb's book of life 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 받습니다. 왕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인생에서 큰 자도 작은 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이에게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으십시오.

